

개산대제 전국서 열린다

10월 범어사·통도사·갑사 등 주요사찰서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산조의 사상과 가르침을 계승해 사찰의 법통을 바로 세우는 개산대제가 전국 사찰에서 잇따라 열린다.

부산 범어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창건 1300년 기념 '문 없는 문을 여는 개산문예대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개산대제에서는 '근현대 불교와 범어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개산대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식행사, 공연, 상설전시, 어울림 한마당 등이 개최되며 10월 1일 오후 8시에는 박물관 앞마당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10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대웅전 앞에서 범패한마당이 진행된다.

양산 통도사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통도사 창건 제1360주년 개

산대제'를 봉행한다. 첫날인 10일 오전에는 설법전에서 개산대제 입제식과 함께 영축사생대회가, 오후 1시부터는 부도현다제가 열린다. 오후 7시에는 대웅전 앞마당에서 만등불사 점등식이 거행된다. 더불어 박물관 중앙패블론에서 제14회 청도적현사 패블링 특별전이, 대웅전에서는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가사 진경 행사가 열린다.

영천 은해사는 10월 8일 오후 3시 부도전에서 다례제를 진행하고 9일 오전 11시부터 범요식을 진행한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지장전에서 지장불안식을 봉행하고, 오후에는 보살계 법회를 개최한다. 또 저녁에는 만등불사 점등식과 함께 제등행렬에 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든다.

계룡산 갑사는 10월 9일 '천년의 산울림'이라는 주제로 제1585주년 개산대제를 연다. 이날 11시부터는 무형문화재 법패이수자인 송강 스님이 범패와 작편 시범을 보이는 영산재 대법회가 시작된다. 이 개산대제에서는 조선 효종 원년에 조성된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패불탱'을 진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각각 전서관에서 영조6년에 의겸 스님이 조성한 갑사 부처님 복장특물별전시회도 개최한다. 갑사는 이외에도 계룡대 호국사 불자회원과 함께 연차 시연 회를 베푼다.

대구 동화사는 10월 9일 개산대제를 열어 서울 불광사도 오는 10월 16일 보광당에서 '창립31주년 기념 법회'를 개최한다. 이은비 기자

"출가자의 소비생활을 규정하는 청구가 사찰 재정의 운영 및 관리방법과 적절히 결합할 때, 삼보장재의 투명한 운용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가 9월 6일 우리함께회관에서 개최한 '종교재정의 투명성·공익성 제고' 열린포럼에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는

부합하는 청규를 제정해야 하며, '원용산림'과 '산중공의'의 정신을 사찰운영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사찰운영 위원회가 의견을 갖는 실질적 기구로 거듭나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해 사찰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세기형 청규 만들자”

유승무 교수, 종교재정 투명화 포럼서 주장

재정 운영과 관련한 청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무 교수는 "자본주의적 소비환경과 삼보장재" 발제를 통해 "문제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 온 계율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적 소비환경에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은 "청정한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부터 지킬 수 있는 청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서경대 김재득 박사, 가톨릭 우리신학연구소 박영대 소장, 개신교 성서교회 방인성 목사가 각 종교의 재정 투명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유철주 기자

‘노인복지법 개정’ 반대 종교계 성명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8월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종교계 및 노인복지법단체가 9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서경석)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단 및 종교계 복지관 관장들로 구성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비영리 노인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비상대책위는 김 의원의 발의 내용용 '사회복지법인의 오랜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새로운 종교 탄압으로 규정될만큼 특정 단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역차별적 개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종교·사회복지법인들의 민간자원 동원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가의 발상에 의해 선의의 사회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비현실적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만 스님은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을 통과해 노인들의 실질적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9월 9일 열린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시상식'에서 영동포 '보현의집' 원장 지만 스님이 서울복지재단 박미석 대표이사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불교계 잇따라 복지상 수상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들이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각 단위로 사회복지상을 수상해 불교 사회복지의 위상을 높였다.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영동포 '보현의 집(원장 지만)'은 9월 9일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제1회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시상식'에서 생활시설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 보현의 집은 '동절기 거리노숙인 응급후호사업'을 응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만)도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노인역

량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용시설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앞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9월 5일 '제3회 서울사랑시상' 시상식에서 복지부문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승가원은 자비복지타운이 건립되고 있다는 점과 기관들의 운영실적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승가원은 또 9월 7일 원주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원주사회복지대중회에서 소책자

를 발행한 김윤동씨와 봉사자 이명순씨가 각각 원주시장을 수상해 기쁨을 더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포럼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8일 한국역사기념박물관 2층에서 '불교 사회복지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월 23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주년 기념 '불교사회복지 아젠다 개발 세미나'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포

럼은 '청소년복지 현황과 발전과제', '정신복지제공으로서 사찰의 역할 탐색', '사회복지영역의 NGO 육성'과 실천전략' 등의 3주제로 논의됐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연말 사회복지대회 전까지 올해 세미나와 포럼 자료를 묶어 책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10·27법난 정부 진상규명

10·27법난의 진상이 정부 차원에서 규명된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이하 과거사위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27법난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 이기욱 위원은 "1차 대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0·27법난을 비롯한 4가지 사건을 2차로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1년인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27법난 조사를 맡은 과거사위 연구총괄 조서과장은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왜 불교인이 탄압을 받았는지와 전국 3000여 사찰이 왜 한꺼번에 정화의 대상이 됐는지를 밝힐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염 과장은 또 "가능한 전두환씨의 개인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대상 선정 유감”

그러나 조계종 10·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장태하, 이하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는)는 과거사위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에 '법난'이 우선적 과제로 선정되지 아니하고 2차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수봉)는 '제13회 불교언론문화상'을 공모한다. 불교언론문화상(옛 보리방송문화상)은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방송·신문·출판 등 3개 분야에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주어진다.

추천 대상은 2004년 11월 이후 제작된 불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장르

제한은 없다. 응모하려면 추천서 1부, 프로그램 기획서, 추천작 VHS 녹화 테이프 1개를 9월 30일까지 이메일(boribang90@hanmail.net)이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 내역은 △대상 △방송-일반방송, 불교방송, 불교TV △신문-불교계신문 △출판-불교도서 등이다. 입상작 발표는 10월 중순경, 시상식은 11월 9일 KBS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02)745-5811 노병철 기자

“친일청산 촛불집회 2천만 불자 동참을”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촛불집회에 2000만 불자가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종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재문·손안식·임현영, 이하 추진위가) 9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진위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조계종은 친일청산에 앞장서 온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아직까지 펼쳐내지 못한 친일망령의 청산을 위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부조리한 이 시대의 악행을 제거하고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파사현정의 길로 나아가길"이라며 "법원이 분신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분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사중의 역량을 모두 동원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승려노후복지실태 조사

조계종 1200여명 대상

조계종이 스님들의 노후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5일부터 조계종 소속 단 65세 이상 스님 1200명을 대상으로 '승려노후복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결과는 10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조계종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라는 의미를 가지며 종단이 앞으로 '자비의 보험금' 사업 등의 승려노후복지사업을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해나갈겠다는 의지

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지 형식의 조사표 발송 이후 1달 동안 조사연구원들의 전화 질의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스님들의 노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서는 기본 인적 사항, 노스님이 상좌나 속가 가족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 질병의 유무, 국가의 기본적 복지 체계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생활 실태, 스님 개인의 노후대책 마련 여부·종단에 요구하는 노후 대책 마련 방법 등을 파악한다. 김강진 기자

‘올해의 불서’ 후보작 접수

불출현, 9월 20일까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가 한 해 동안 출간된 서적 중 불교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책을 선정·발표하는 '올해의 불서 10'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 분야는 불교관련 저·역사로, 경전해설서나 교리입문서, 수행관련서, 학술·역사서, 문화예술,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망라한다. 단,

시나 소설은 제외다.

참가를 원하는 출간사는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에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에 대한 서지정보 및 300자 이내의 소개글 등의 신청서류를 선정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후보작 접수는 9월 20일까지 받으며, 11월 중순경 불교계 신문을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02)926-8361 여수령 기자



제2회 재가오계 수계식과 바른참선 지도대법회



향곡대선사로부터 한국의 선택을 이으신 진제대선사께서 1971년 해운대 해운정사를 창건하신 개산일을 기념하여 원로의원이신 지혜대종사, 진제대종사님을 모시고 이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수승한 인간의 복락과 지혜를 누리는 인연은 재가오계(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를 수지하는데 있으므로 불명과 수계첩을 받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계식과 함께 올바른 참선법문을 들으시고, 오후에는 참선지도와 실참시간이 마련되어 직접 정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 인연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두루 동참하시어 탑을 돌며 재가오계를 지키고 참나를 밝혀려는 서원을 세우고, 올바른 참선법을 분명히 지도받아 간결하게 화두일념이 되도록 일상생활 가운데 꾸준히 노력하시어 마침내 대안락과 대지혜를 성취하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해운정사 주지 지 상 합장



- 중 명 : 지혜 대종사(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
- 전계와 바른참선지도 법문 : 진제 대종사 (해운정사·동화사 주시,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
- 장 소 :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 일 시 : 불기2549(2005)년 10월 17일 (음 9.15) 오전 10시 : 바른 참선법문과 수계식 오후 2~4시 : 참선수행 실참 저녁 7시 : 예불 후 재가오계점 등
- 동 참 금 : 15,000원 (불명은 행사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 해운정사 사무실(T. 051-746-2256, 4812) (팩스: 051-741-8882)
- 홈페이지 : http://www.seon.or.kr
- 입금계좌 : 농 협: 909-17-002300(예금주:해운정사) 국민은행: 119-01-0324-888(예금주:해운정사)
- ※ 기타안내 : 20여대의 관광버스 주차여건이 완비되었으나 앞으로 있을 삼사순례 때 많은 참배를 바랍니다.

돌사람 크게 웃네 (石人大笑)
진제대선사 법어제2집 : 향상일로의 사자후! 역대 선지식들의 화두법문에 대한 고준한 평창 법어. <도서출판 백광>

엄화인천 (꽃을 들어 하늘과 사람에게)
진제대선사 법어제2집 : 지혜의 보배칼로 다생의 무명초를 단칼에 베어 없애는 돈오참선법문. 옛 도인들의 차별삼매에 대한 점검. <화산문화사>

심원 禪백문백답 얼마나 참선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제법답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법문. 올바른 참선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